

메가박스 회생절차 관련 영화계 긴급 간담회 개최

- 7. 10. 최휘영 장관, 배급업계 및 위탁상영관의 현장 목소리 청취
- 애로사항 접수센터 가동, 법률 상담 등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이하 영진위)와 함께 7월 10일(금) 오후, 최근 메가박스중앙(주)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하여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 업체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휘영 장관과 한상준 영진위원장을 비롯해 메가박스중앙과 경영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급업체와 위탁상영관 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배급업체 및 위탁상영관 관계자들은 메가박스 측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경영상 영향과 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개진하는 한편, 영화계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최휘영 장관은 “그간 영화산업의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정부로서 최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현장이 무너지면 한국 영화의 미래도 없다는 경각심을 갖고 업계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25일부터 ‘영화계 영향 및 애로사항 접수센터’를 개설해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조만간 유관 업체 대상으로 회생절차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권 신고 등을 위한 전문 법률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책임자	과장	김지희 (044-203-3231)
		담당자	사무관	윤이경 (044-203-3232)

